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3.18. ~ 3.24.)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출 29 - 35	요 8 - 14
	개인	잠 5 - 11	갈 4 - 엡 4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믿음(2)		
	<p>갈라디아서 3장 24절</p> <p>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p>		



3월 18일(월)

출29

요8

잠5

갈4

갈라디아서 4장 /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개요

1-7 종에서 아들로

8-20 다시 종으로?

21-31 종과 아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1-3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을 종에서 아들로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4-7절).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8-11절). 바울은 자신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12-20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는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합니다(21-31절).

종에서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죄의 관성은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은혜로 부름 받은 인생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를 종의 삶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시도(하갈)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을 아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월 19일(화)

출30

요9

잠6

갈5

갈라디아서 5장 / 성령으로 행하라

개요

1-15 그리스도인의 자유

16-26 성령의 열매

약속의 자녀이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2-12절).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하는 것입니다(13-15절). 사랑으로 중 노릇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16-26절).

복음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삶을 낳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의 욕심을 못 박은 모든 신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속에 주령주령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3월 20일(수)

출31

요10

잠7

갈6

갈라디아서 6장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개요

1-10 짐을 서로 지라

11-1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실체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1-5절).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2절).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6-10절). 이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11-18절).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13,14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자의 수고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만, 성인만,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수고가 무르익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말과 함께 삶으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주님, 그 즐겁고 놀라운 혁명에 참여하여 열매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3월 21일(목)

출32

요11

잠8

엡1

에베소서 1장 /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교회

개요

1-14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

15-2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찬송할 노래입니다(3절). 그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4-6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 일입니다(7-10절).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11-14절). 바울은 이 은혜 안에서 부름 받은 온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몸으로서 존재하기를 기도합니다(15-23절).

성도를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우주적이며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통일될 날을 기다리며, 이미 그 아래 부름 받은 교회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땅의 증거입니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교회**개요**

1-10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11-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은 교회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1-3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4-10절).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11-20절). 또한 부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21,2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마암아 행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입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신 일입니다. 교회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 받아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를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함께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3장 / 교회에게 주시는 충만함**개요**

1-13 나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14-21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1절). 그는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전합니다(2-4절).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 받은 은혜입니다. 교회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일입니다(5-1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12,13절). 오히려 환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중에 하나이므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옥중에 있는 바울은 온 교회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14-21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이 땅에서 그 충만을 경험하는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며, 온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소위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 하나 됨을 지키는 교회**개요**

1-16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7-24 새 사람을 입으라

25-32 참된 것을 말하라

주님의 구원의 영광에 대해 서술한 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1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2-6절). 각 지체의 분량대로 힘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는 일입니다(7-16절).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17-24절). 그런 삶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25-32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양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그 어떤 틈도 주지 말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마침 이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일이네요!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도록 하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공동체(2)

변화의 장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1-11)

1. 바울이 빌립보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였을까요?(2-4절)

2. 바울이 열거하는 일치와 겸손의 네 가지 기초는 무엇인가요?(1절) 이런 토대들이 어떻게 일치와 겸손으로 이어질까요?

답1.

첫째, 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2절)고 말한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화합을 권면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해 동의하고(“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한 마음을 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둘째, 겸손에 대한 권면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태도이다. 2절은 그리스도인을 몸 전체로 취급하는데, 3절과 4절은 각 사람을 개개인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다툼: 이기적인 야망’(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세움)과 ‘허영: 헛된 자만’(이것은 자신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중심성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

답2.

- 권면: '결에서 말한다'는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충고나 위로
- 위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위로나 격려.
- 성령의 교제(또는 영적 교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에 따른 순종
- 공훈과 자비: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의해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

-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힘과 위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허영이란 명예, 인정 및 지위에 대한 굶주림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기쁨, 격려, 위안이 깊다면 다른 사람들의 찬사는 중요하지 않다.
- 성령의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름에도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 기질 또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 교제한다. 이 사실은 정치적, 지적 또는 문화적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
-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하나님은 전혀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3. 5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6-11절)

팀 켈러의 핵심 메시지

-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 11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2:9-12)

복음으로 빛어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으로 빛어진 사람이 된다. 당신이 복음을 변화되기 바란다면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해야 한다. 서로 죄를 자백하며 서로 점검하고 붙들어줘야 한다. 함께 결정하고 서로 상의해야 한다. 함께 배워야 한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점차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서로 ~하라’고 말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롬 12:10), 서로 섬기라(갈 5:13), 서로 접대하라(벧전 4:9), 서로 격려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책망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사랑하라 등.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다. 매주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단단히 결속되어,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알아야 한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가? 당신은 그 관계를 통해 배우고 있는가?

4.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는 그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답3.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 성육신(6-7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신성(6절)을 가지고 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7절) 자기를 낮추셨음을 알 수 있다.

- 속죄(8절)

예수님은 죄를 위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연약함을 택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 미래의 왕국(9-11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다(9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안다.

5.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6. 다음은 로마서 12장에서 뽑은 공동체를 위한 지침이다.

- 정직하게 사랑하라. 잘못된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라(9절).
- 비호감인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들도 당신의 형제자매이다(10절).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라(10절).
- 관대하라. 당신의 가정, 돈, 시간을 공유하라(13절).
- 쓴 마음 없이 사랑하라. 앙갚음하지 말라. 서로에게 분노를 품지 말라(14절).
- 공감하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함께 하라(15절).
- 겸손으로 사랑하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지식 수준, 학벌, 환경 등)과 함께 동료가 되라(16절).

다음 중 우리 그룹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우리에게 주님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형제자매와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답5.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또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회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6가지 지침(존 파이퍼)

- 험담을 피하자.
- 은혜의 증거를 찾아 서로 이야기하자.
- 타인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이야기하자.
- 상대방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의도를 찾자. 특히,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비전을 자주 생각하자.
- 우리가 옳다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리고 우리 관계를 복음으로 만들어가자.